

유아 놀이성에 대한 성격강점의 예측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Prediction Factors of Character Strengths on the Playfulness of Young Children

탁정화¹

Jeonghwa Tak¹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luster types according to the playfulness factors of young children and to predict the character strengths of young children which have an influence on the types of children's playfulness.

Methods: Playfulness and character strength tests were administered to 237 young children. The playfulness groups were classified by cluster analysis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was used to find the character strengths of young children that have a effect on the types of children's playfulness.

Results: First, the children's playfulness groups were divided into a high playfulness group and a low playfulness group.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character strengths according to the children's playfulness cluster, and the high playfulness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 in all character strengths. Third, the children's character strengths influencing the high playfulness group were vitality and positivity, self-regulation, self-esteem, and sensibility.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cessity of supporting these character strengths was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the playfulness of children in the education field.

* 이 논문은 2018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¹ 제1저자(교신저자)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 happiertak@gmail.com)

key words character strengths, playfulness, young children

I. 서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로 교육분야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역량중심 교육으로,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지식 전달에서 지식의 변화가능성을 수용하는 포용적 차원으로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곽영순, 2015; 임종현, 유경훈, 김병찬, 2017).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Dougherty는 메이커운동(maker movement)을 통하여 학습결과물을 가시화하는 놀이경험을 강조하며,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창작하는 놀이와 일이 통합된 일련의 과정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밝혔다(Halverson & Sheridan, 2014). MIT대학교 교수인 Resnick(2018)도 AI시대에 새로운 교육과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생유치

원(lifelong kindergarten)처럼 유아교육의 주요한 교수학습방법인 놀이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이들은 창의적 학습, 열정, 협력 등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놀이성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강조되는 놀이성은 끊임없이 배움을 즐기는 자세, 배우는 과정에서의 긍정경험을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놀이를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 놀이와 학습의 과정에서의 역동적 관계를 의미하는 킥러링(Tinkering)은 단기간에 끊임없이 시도하는 반복행동이 단순히 물체를 탐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심화·확장되어 유아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체화하도록 돕는 방법이다(Blikstein, 2013). 이처럼 놀이성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의 교수학습원리로 강조됨에 따라 놀이시간의 충분성, 놀이공간의 범위, 교사 및 유아 간 놀이 주도성, 놀이권력의 긴장감 등 다양한 놀이담론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진짜 의미있는 놀이를 찾아주기 위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이경화, 2019). 교사가 계획하는 놀이활동, 교과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된 놀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면서(임부연, 2017) 교사가 계획한 놀이, 규격화되고 분절된 놀이에서 벗어나 놀이의 자유, 움직임, 자발성이 놀이담론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정선아, 김희연, 2011)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놀이의 가치를 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놀이 실행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놀이중심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놀이-학습-몰입의 선순환적 경험과 학습자의 능동성이 강조되고 있다(임부연, 손연주, 2019; 탁정화, 2019).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통하여 최적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며, 능동적인 놀이학습상황과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놀이와 학습의 통합을 강조한다(Elkind, 2001). 놀이는 다양한 사고형성을 지원하고 삶-삶을 연결짓는 발현적 교육과정의 운영을 돕고, 유아가 지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부미, 2001; 임부연, 2017; 정선아, 김희연, 2011). 이러한 놀이 속성은 유아교육의 주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과정의 배움과 역동적 창조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연령의 유아라도 놀이성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성은 놀이의 충만함을 뜻하는 놀이성(playfulness)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놀이성은 놀이를 즐기는 잠재된 개인성향을 뜻하며(Boyer, 1997) 놀이하는 힘과 성향을 의미한다(Lieberman, 1965). 유아 놀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한 Barnett(1990)는 놀이성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을 갖고 즐거운 정서를 표현하며 유머적 특성을 갖는다고 개념화하였다. 놀이성은 교육과정의 차이생성에 주요역할을 하며(임부연, 손연주, 2019)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정, 2015).

유아 놀이성의 주요작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유영의, 2006; 지성애, 김승희, 2010; Barnett, 1990)에 따르면,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상상력과 유머가 뛰어나며, 정서표현 활용빈도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정서능력, 사회적 능력, 리더십,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데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화윤, 안라리, 2006; Singer, 2013). 이처럼 놀이성의 효과를 살펴본 최근 연구(이승하, 2019; 최지영, 박유영, 2012)에 따르면, 놀이성은 유아의 긍정적 사회관계유지, 정서능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사회도덕적

가치를 증진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도덕적 가치는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는 행복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성격강점 구성요인과 유사성을 갖는다. 성격강점은 자신의 내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길러 인성교육에서 요구하는 성격강점, 긍정정서, 사회관계, 인지적 지혜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참된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Shoshani & Slone,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의 예측요인을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놀이성과 사회도덕적 가치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보장하고, 웰빙을 통한 행복플로리시 증진을 돕는 건강성 향상을 위해 출발되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에서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적, 정신적 요소가 균형을 있게 안녕의 상태(state of well-being)를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긍정심리학자(권석만, 2009; Biswas-Diener, 2010; Peterson & Seligman, 2004)들은 조화로운 안녕의 상태를 유지함에 있어 강점(strengths)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 뒤, 성격강점의 증진을 통한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강점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심리적 요인이며, 정신문제를 예방하고 발병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긍정특질(positive trait)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Lopez & Snyder, 2003).

강점의 중요성에 주목한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사회문화적 적합성, 발달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VIA분류체계를 조직한 뒤, 24가지 성격강점으로 긍정특질을 규명하였다. 긍정심리학 분야의 성격강점은 미덕을 추구하는 윤리적 측면과 행복한 삶을 이끄는 요인으로 강점을 강조한다.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에서 수행된 성격강점 연구에서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Brdar & Kashdan, 2010; Zhang & Chen, 2018). 성격강점 중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강점은 낙관성, 활력, 감사, 사랑, 호기심으로 밝혀졌으며 (Park, Peterson & Seligman, 2004) 낙관성, 활력, 사랑은 긍정적 정서와 높은 상관율, 부정정서와는 낮은 상관율을 보였다(Littman-Ovadia & Lavy, 2012; Martinez-Marti & Ruch, 2014; Shoshani & Slone, 2013). 이렇듯, 성격강점은 개인건강 유지 및 행복교육을 위한 주요한 인성덕목이자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역할을 한다.

유아의 안녕상태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들어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포괄하는 유아강점연구(신현정, 2019; 탁정화, 2017; 탁정화, 황해익, 2019; 황해익, 제희선, 채혜경, 2019; 황해익, 탁정화, 2016)가 수행되어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유아강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교육분야에서의 강점이 가진 위치성은 최소투입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오는 강점의 경제적 측면이기 보다는 개인이 가진 내적 자질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탁정화, 황해익, 2019). 즉, 유아강점은 학습상황에서 작동하는 학습자의 능력이자 긍정적 관계 및 성숙한 사회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특성이라는 가정에 바탕으로 두고 유아강점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애발달에 있어 강점증진 교육은 개인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을 위해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을 바탕으로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생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성격강점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지영, 2019; Zhang & Chen, 2018). 그 결과, 성격강점의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꺾림은 Clifton Strengths Finder 2.0, Strengths Quest, Strengths Explorer를 개발하여 성인과 대학생의 강점을 측정하여 심리적 변인간의 관련성과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Lopez & Snyder, 2003; Magyar-Moe, 2009). 성인용 VIA-IS, 청소년용 VIA-Youth이 개발된 이후로, 한국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CST(권석만, 유성진, 임영진, 김지영, 2010), CST-A(권석만, 김지영, 하승수; 2012), 아동성격강점검사(김광수 등, 2015)는 아동, 청소년, 성인분야의 성격강점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성격강점의 예측정도를 밝힌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의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은 끈기로 나타났으며 끈기, 자기조절이 대학생의 높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김지영, 2019; Park & Peterson, 200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절성, 시민의식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사랑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켰다(Gillham et al., 2011). 이렇듯 강점은 학습자의 학업성장, 우울증,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며, 성격강점은 단순히 심리적 변인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발달과정에서 긍정적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탁정화와 황해익(2019)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적합성, 연령 적합성을 고려하여 일상재구성법, 유아그림분석법 등 미시적 분석방법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관찰가능한 유아강점 구성개념을 도출한 뒤, 유아대표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유아강점척도는 유아의 긍정적 내적신념, 학습활동,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측정도구로, 유아기 고유한 생애발달적 특성,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풍토를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강점은 유아 개인 내 평가를 지향하며, 유아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측면과 긍정적 특징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유아기는 발달속도가 빠르며, 학습능력과 밀접한 성격특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므로(Steinberg, Vandell, & Bornstein, 2010) 유아의 긍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강점, 자원, 가치가 유아의 어떠한 점을 예측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 개정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의 놀이성에 주목하며, 유아의 놀이성 하위요인의 조합에 의해 자연발생학적으로 형성된 군집을 확인한 뒤,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놀이성 하위요인의 특정 양상을 규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연관성을 살피고,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처럼, 유아 놀이성의 유형을 구분하여 성격강점 간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유아 놀이성 발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관계를 살펴 궁극적으로 유아기 전인발달과 강점에 기반한 행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 놀이성의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 예측요인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와 경상북도 Y시에 소재하고 있는 총 13개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250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사 23명(교사 경력 5년 이상, 교사 1인당 5~15명 유아행동 평정 실시)에게 설문지 250부를 배포한 뒤, 23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4.8%였으며 미응답설문지를 확인한 뒤, 최종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남아($N=126$, 53.2%)가 여아($N=111$, 46.8%)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5세($N=123$, 51.9%)가 4세($N=114$, 48.1%)보다 높았다. 또한 유아가 재원하는 기관은 어린이집($N=137$, 57.8%)이 유치원($N=100$, 42.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

구분	내용	빈도(N)	비율(%)
성별	남	126	53.2
	여	111	46.8
연령	4세	114	48.1
	5세	123	51.9
재원기관	어린이집	137	57.8
	유치원	100	42.2
합계		237	100.0

2. 연구도구

1) 유아 놀이성

유아 놀이성은 Lieberman(1965)이 제안한 놀이성 요인에 따라 Barnett(1990)가 개발한 유아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유아 놀이성 척도는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뒤, 평정하여 유아놀이성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과 문항수를 살펴보면 신체적 자발성 4문항, 사회성 자발성 5문항, 인지적 자발성 6문항, 즐거움의 표현 5문항, 유머감각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유아 놀이성 척도 및 신뢰도

구분	내용	문항수	신뢰도
신체적 자발성	놀이할 때 신체기관의 협응이 잘되고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	4	.86
사회적 자발성	놀이할 때 친구의 접근에 쉽게 반응하고 협동적이며 친구를 쉽게 사귀고 놀잇감을 함께 나누는 성향	5	.91
인지적 자발성	놀이할 때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하며 놀잇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독창적인 성향	6	.88
즐거움의 표현	놀이를 할 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열중하며 기운차고 즐거워하며 감정표현이 자유로운 성향	5	.86
유머감각	장난기가 많고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고 익살스러우며 우스꽝스런 이야기에 잘 웃는 성향	5	.88
놀이성		25	.89

2) 유아 성격강점

유아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탁정화와 황혜익(2019)이 개발한 유아강점척도를 활용하였다. 유아강점척도는 하루일과 중 유아행동을 교사가 관찰하여 측정하는 도구로, 성격강점, 학습강점, 생활강점의 3가지 요인, 1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유아강점척도 중 성격강점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성격강점은 세상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유아기에 나타나는 긍정적 특성인 품성강점으로, 6가지 하위요인, 37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문항마다 단서형과 관찰형을 제시하여 유아관찰행동의 객관성과 타당도를 높였다.

표 3. 유아 성격강점 척도 및 신뢰도

구분	내용	문항수	신뢰도
자존감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좋아하는 것	5	.90
자기조절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 이를 조절하는 것	5	.90
활력 및 긍정성	열의, 긍정적 에너지, 적극성을 바탕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6	.89
탄력성	끈기, 인내, 도전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	4	.91
심미감	다양한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를 향유하고자 하는 것	5	.87
관계성	친절, 배려, 나눔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능력을 알고 실천하며 집단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	12	.96
유아성격강점		37	.90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 제작, 예비조사, 본조사의 3단계로 수행되었다. 유아의 놀이성, 성격강점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는데, 2018년 12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담임교사 3인을 대상으로 유아를 3명씩 관찰한 뒤, 놀이성과 성격강점 평정의 적절성, 문항의 해석가능성, 설문지응답시간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성격강점 평정기준에 대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고려하여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본연구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 안내를 한 뒤, 놀이성과 성격강점 평정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유아성격강점 관찰척도의 평정기준(관찰형, 단서형)에 대한 교육을 30분정도 실시하였으며 관찰자 평정의 객관성유지를 위해 최소 1주일이상 유아를 심층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행동을 평정하도록 하였다(평정자간 일치도 95.3%). 본조사는 B광역시와 Y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2019년 1월 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담당교사 23명(교사 1인당 5~15명 평정실시)이 평정한 결과를 최종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Window용 SPSS 23.0 프로그램으로 자료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유아의 놀이성, 성격강점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람중심의 변인특성을 유형화하는 군집분석은 유아 놀이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군집 내의 동질성과 군집 간의 이질성을 최대화하여 군집을 도출하며, 본 연구는 계층적 군집분석과 K-평균군집분석으로 유아 놀이성의 군집을 유형화하였다. Hair와 Black(2000)이 제시한 군집분석 방법에 따라 Wards방법의 위계적 군집분석, K-means방법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 놀이성의 군집특성에 영향을 미친 개인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 성별, 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 예측요인 분석을 위해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 놀이성 군집에 따른 유아의 성격강점의 차이성을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종속변인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인식

유아교사 평정방식을 통한 유아의 놀이성과 성격강점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에 대한 인식

(N = 237)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자발성	2.25	5.00	4.07	.80
사회적 자발성	1.00	5.00	3.94	.71
인지적 자발성	2.00	5.00	3.62	.77
즐거움의 표현	2.60	5.00	4.23	.66
유머감각	1.67	5.00	3.69	.71
놀이성	2.59	5.00	3.91	.61
자존감	2.20	5.00	3.88	.62
자기조절	1.40	5.00	3.75	.69
활력 및 긍정성	2.00	5.00	3.54	.64
탄력성	1.50	5.00	3.66	.79
심미감	1.80	5.00	3.47	.73
관계성	1.64	5.00	3.65	.70
성격강점	2.03	4.94	3.66	.57

유아 놀이성의 평균점수는 3.91($SD = .61$)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 놀이성의 하위요인 점수를 살펴보면, 즐거움의 표현($M = 4.23$, $SD = .66$), 신체적 자발성($M = 4.07$, $SD = .80$), 사회적 자발성($M = 3.94$, $SD = .71$), 유머감각($M = 3.69$, $SD = .71$), 인지적 자발성($M = 3.62$, $SD = .77$)의 순으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유아는 놀이를 할 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열중하며 자유롭게 감정표현 하는 즐거움의 표현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협응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신체적 자발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등의 놀잇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독창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인지적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보통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유아의 성격강점을 살펴보면, 3.66($SD = .57$)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존감($M = 3.88$, $SD = .62$), 자기조절($M = 3.75$, $SD = .69$), 탄력성($M = 3.66$, $SD = .7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활력 및 긍정성($M = 3.54$, $SD = .64$), 심미감($M = 3.47$, $SD = .73$)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성격강점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자존감 및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에 대한 성격강점이 높았으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를 향유하는 심미감,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열정적인 특성인 활력 및 긍정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유아 성격강점으로 나타났다.

2. 유아 놀이성의 군집유형 분석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의 관계를 바탕으로 유아 놀이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의 4가지 하위요

인으로 구성된 유아 놀이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석가능성, 군집 유형에 분포하는 사례수 등을 고려하여 유아 놀이성은 2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되었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유아 놀이성의 군집유형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전체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 군집1을 놀이성이 낮은 집단으로 규명하며 “놀이성 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전체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 군집2는 놀이성이 높은 집단으로 규명하며 “놀이성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특성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5와 같다.

표 5. 유아 놀이성의 군집특성 (N = 237)

구분	군집1	군집2
신체적 자발성	-.76	.61
사회적 자발성	-.79	.63
인지적 자발성	-.81	.65
즐거움의 표현	-.83	.66
유머감각	-.71	.57
사례수	105	132

유아 놀이성의 군집특성의 개인적 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 연령, 기관, 성별에 따른 유아 놀이성 군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놀이성 군집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chi^2 = 8.05, p < .01$), 연령($\chi^2 = .17, p > .05$),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유형($\chi^2 = 3.14, p > .05$)에 따른 놀이성 군집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유아 놀이성의 군집특성 빈도(%) (N = 237)

구분	놀이성 하집단	놀이성 상집단	전체	χ^2
성별	남	81(34.2%)	126(53.2%)	8.05**
	여	60(25.3%)	111(46.8%)	
연령	만4세	63(26.6%)	114(48.1%)	.17
	만5세	69(29.1%)	123(51.9%)	
기관 유형	어린이집	83(35.0%)	137(57.8%)	3.14
	유치원	49(20.7%)	100(4.2%)	
	전체	105(44.3%)	132(55.7%)	

** $p < .01$

3.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 예측요인 분석

유아 놀이성의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와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을 결정짓는 성격강점의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연구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 집단특성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유아의 성격강점은 놀이성 하집단보다 놀이성 상집단이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1.31, p < .001$).

표 7.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에 대한 인식정도 (N = 237)

구분	군집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존감	놀이성 하집단	105	3.48	.56	-10.99***
	놀이성 상집단	132	4.20	.45	
자기조절	놀이성 하집단	105	3.34	.64	-9.38***
	놀이성 상집단	132	4.07	.54	
활력 및 긍정성	놀이성 하집단	105	3.08	.47	-12.48***
	놀이성 상집단	132	3.90	.52	
탄력성	놀이성 하집단	105	3.34	.76	-5.95***
	놀이성 상집단	132	3.91	.72	
심미감	놀이성 하집단	105	3.20	.67	-5.40***
	놀이성 상집단	132	3.69	.70	
관계성	놀이성 하집단	105	3.23	.55	-9.68***
	놀이성 상집단	132	3.98	.63	
성격강점	놀이성 하집단	105	3.28	.46	-11.31***
	놀이성 상집단	132	3.96	.45	

*** $p < .001$

성격강점 하위요인에 따른 놀이성 군집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놀이성 상집단은 놀이성 하집단과 비교하여 자존감($t = -10.99, p < .001$), 자기조절($t = -9.38, p < .001$), 활력 및 긍정성($t = -12.48, p < .001$), 탄력성($t = -5.95, p < .001$), 심미감($t = -5.40, p < .001$), 관계성($t = -9.68,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놀이성 상집단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존감이 높았으며, 놀이성 상집단이 자기조절이 높았다. 또한, 놀이성 상집단이 놀이성 하집단에 비하여 활력 및 긍정성,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탄력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감, 긍정적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른 예측요인 분석

유아 성격강점을 독립변수로, 유아 놀이성 2가지 군집유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뒤,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과 유아 놀이성 집단분류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놀이성 하집단과 놀이성 상집단의 군집유형에 따른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2LL$ 값과 χ^2 값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2LL$ 값은 상수항으로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를, χ^2 값은 기초모형과 이론모형의 차이 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정도를 살펴봄에 예측요인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모형에 포함된 성격강점 중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LL$ 값과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001$) 이는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유의미한 모델이라고 규명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따른 유아 놀이성 군집 집단의 정확도는 84.0%로 분류되어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놀이성 하집단과 놀이성 상집단의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놀이성 하집단은 82.9%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놀이성 상집단은 84.8%의 정확도를 보였다.

표 8.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 (N = 237)

	유아 놀이성 군집 유형			정확도
	놀이성 하집단	놀이성 상집단	전체	
놀이성 하집단	87	18	105	82.9
유형 놀이성 상집단	20	112	132	84.8
전체	107	130	237	84.0

$-2LL = 176.95$, χ^2 (절편모형-이론모형) = 148.04 ($df = 6$, $p = .000$), Nagelkerke $R^2 = .62$

군집 유형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B 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식의 기울기를 뜻하며 EXP(B)는 승산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승산비를 성격강점은 자존감, 자기조절, 활력 및 긍정성, 탄력성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성 군집 그룹에 속할 확률의 비율에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존감($B = 4.02$, $p < .05$), 자기조절($B = 1.22$, $p < .05$), 활력 및 긍정성($B = 2.83$, $p < .001$), 탄력성이 높을수록($B = .82$, $p < .05$) 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심미감과 관계성은 놀이성이 높은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9.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이 성격강점 설명력 (N = 237)

	회귀계수(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EXP(B)
자존감	4.02	.52	3.87	1	2.78*
자기조절	1.22	.54	5.14	1	3.40*
활력 및 긍정성	2.83	.60	22.86	1	17.49***
탄력성	.82	.37	4.81	1	.44*
심미감	-.70	.37	3.50	1	.50
관계성	.72	.50	2.06	1	2.05
상수항	-15.35	2.08	54.47	1	.00

* $p < .05$, *** $p < .001$.

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확률은 자존감이 1점 높아지면 2.78배 증가하고($p < .05$), 자기조절이 1점 높아지면 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3.4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또한, 활력 및 긍정성이 1점 높아지면 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17.49배 증가하였으며($p < .001$), 탄력성이 1점 증가하면 놀이성 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놀이성 상집단에 속하는 성격강점의 설명력은 활력 및 긍정성, 자기조절, 자존감, 탄력성의 순으로 예측되었다.

IV. 논의 및 결과

본 연구는 2019년 개정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의 놀이성에 주목하며, 유아의 놀이성 하위 요인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 군집특성을 확인하고, 유아 놀이성 군집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유아 놀이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강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 놀이성의 하위요인으로 즐거움의 표현, 신체적 자발성이 높았으며,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놀이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재미와 기쁨을 느끼고, 다양한 매체, 자연, 이야기, 주변세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이처럼 놀이가 가진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여 즐거움의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놀이를 할 때 유아는 몰입하고 활력이 넘치고 즐거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특성은 나은숙(2018)과 탁정화(201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긍정정서는 문제해결능력향상, 사회적 자원구축, 회복탄력성과 낙관주의 증대를 통한 심리적 자원마련 등 사고기능과 행동양식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므로(Biswas-Diener, 2010; Fredrickson, 2001)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경험한 기쁨, 만족, 관심, 자부심은 유아의 성장과 배움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인 높게 나타났는데,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동적 성향이 유아기 고유한 놀이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힌 연구(김정운, 2006; 이부미, 2001; 임부연, 손연주, 2019)와 유사한 맥락이다. 김검섭(2008)에 따르면, 신체활동을 통한 놀이의 양상은 ‘흥분놀이’와 유사한데, 유아들 중 숨이 차도록 달리거나 빙글빙글 도는 신체움직임, 비탈길달리기 등의 신체적 유희는 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형태 중의 하나라는 점과 일치한다. 몸의 움직임을 통한 탐색과 지각현상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놀이중심 교육은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대상과 소통하는 주체임을 인정하여(이화도, 2016; 임부연, 유혜령, 류미향, 2012) 교실수업에서 상상과 내러티브 등이 충만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유아 놀이성 중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자발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세 유아는 사회극놀이, 협동놀이 등으로 놀이가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지성애, 김승희, 2010), 하나의 놀이주제가 활동간 통합, 영역간 통합으로 심화되어 다양한 역할 및 놀이 스크립트

를 생성하고, 놀이에 참여하는 공간과 시간을 확장시킨다. 경험의 재구성과 상상적 놀이를 즐기는 유아는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놀이를 통해 구현해 나가는 창조적 존재이므로(Barnett, 1990; Boyer, 1997)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놀이문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놀이성에 기반한 배움-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충분한 놀이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역할가작과 사물가작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치~인 것 같은’ 허구적인 상황과 환상놀이 및 규칙없는 놀이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놀이의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놀이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놀이성은 유아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삶으로 자유, 움직임, 자발성 등이 놀이핵심으로 여겨짐에 따라(이경화, 2019; 탁정화, 2019)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계획, 실행, 평가의 순환적 과정에서 놀이본질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유아 성격강점 하위요인 중 자존감, 자기조절력, 탄력성의 순으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활력 및 긍정성, 심미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강점이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유아는 각 환경체계와 호혜적이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발달을 촉진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의 범위를 동심원적으로 넓혀 나간다(Bronfenbrenner, 1992; Steinberg, 2010).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 중 자기이해, 자기조절, 탄력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라는 유기체를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과 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사회관계 형성에 기초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자기이해에 대한 성격강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존감과 자기조절력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 사고, 감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연결되므로(권석만, 2009; Hooper, 2012), 고등정신능력을 길러 상호작용능력, 문제해결, 정서지능, 사회기술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인측면의 성격강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심미감은 유아성격 강점 중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난 성격강점이었는데, 상상력과 환상놀이를 즐기는 4세 시기를 지나 이성과 논리성을 배워나가는 5세의 발달특성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Peterson & Seligman, 2006)에 따르면,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이해하는 심미안은 청소년보다 성인이 높았으며, 한국 성인의 성격강점을 비교한 김지영(2019)의 연구에서도 심미안은 24개 성격강점 중 13위를 차지하며 심미감이 중위권을 차지한 성격강점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자연의 아름다움 탐색, 예술과 문화에 대한 향유 및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개념을 포함하는 심미감은 교육공간, 교수학습방법, 교수매체 등 교육상황에서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가져와 감각의 정서를 지각하고 수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임부연, 2015; 임부연, 유혜령, 류미향, 2012). 발달적 측면에서 유아의 상상력, 감성 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성(친절, 사랑, 사회지능, 유머), 낙관성 및 활력, 학구열은 유아기에 빈번하게 도출되는 성격강점이며 공정성, 영성, 용서, 지혜 등은 유아기에 관찰하기 어렵다는 탁정화와 황해익(2019)의 연구와 유사하게 김지영(201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생의 초월적 차원을 나타내는 성격강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애발달적 차원에서 유아강점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의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2개 군집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유아 놀이성의 군

집유형은 놀이성이 높은 집단과 놀이성이 낮은 집단으로 도출되었다. 유아 놀이성은 사회정서변인에 비하여 2가지의 단순한 군집양상을 보였으며, 군집분석은 놀이성 하위요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유사성을 파악하는 통계분석으로 대부분의 유아 놀이성은 유사한 군집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 상집단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이 놀이성 하집단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놀이성은 유아의 리더십, 정서조절,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고, 상상력과 유머가 있는 말놀이를 통한 언어 유희를 즐기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양보, 배려, 공감 등의 사회적 능력의 성숙을 돕는다고 보고한 연구(최지영, 박유영, 2012; 허혜경, 2013; Singer, 2013)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놀이성은 유아의 기관적응을 돕고(강민정, 2015) 정서인식과 정서조절능력을 증진하는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유영의, 2006) 사회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이승하, 2019)와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켜(최명선, 김지혜, 2006) 또래유능성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최지영, 박유영, 2012)를 지지한다.

미래사회 대비를 위하여 놀이성은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됨에 따라(김정운, 2006; 이부미, 2001) 유아기부터 개인의 고유한 놀이성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으로 궁리하고 자신의 목표를 재검토하는 순환적 과정인 놀이 속 텅커링의 과정은 유아가 가진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등 놀이를 통한 배움과 배움을 통한 놀이의 역동적 측면을 강화하며(Halverson & Sheridan, 2014), 놀이를 통한 교수학습이 바로 역량중심 교육, 학습자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곽영순, 2015; 임종현 등, 2017). 따라서 상상, 실험하는 놀이의 과정이 유아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아기부터 놀이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령, 성별, 기관유형에 따른 유아 놀이성 군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놀이성 군집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과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놀이성 군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자발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는 연구(허혜경, 2013) 및 남아보다 여아가 놀이상황에서 사회적 기술을 더 잘 사용한다는 연구(최명선, 2006; Steinberg et al.,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렇듯, 유아의 놀이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야기하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놀이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 놀이성 군집유형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 집단특성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격강점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아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으로는 활력 및 긍정성, 자기조절, 자존감, 탄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활력, 긍정적 에너지, 재미있는 행동, 생활 속의 재미발견, 부정적 부분보다는 긍정적 부분 발견하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을 강조하는 활력 및 긍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유아 놀이성이 높은 집단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높았으며, 상황에 따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하려는 성향,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인 자기조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정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탄력성도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활력 및 긍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 밝혀졌다. 75개국을 대상으로 성격강점 세계분포경향 제시한 자료(McGrath, 2014)에서도 유아기는 낙관성(optimism), 희망(hope)이 높게 나타났는데, 유아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소망하는 일이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희망적 태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놀이성 상집단은 놀이성 하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태도를 갖는 것(Peterson & Seligman, 2004)이 놀이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행복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내용(Ben-Shahar, 2007; Biswas-Diener, 2010)으로 활력증진하기, 유머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 낙관성 기르기 등이 제안된 것처럼 활력과 긍정성은 행복을 이끄는 중요한 성격특질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활력 및 긍정성의 강점이 유아놀이성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적극적이고 활기가 넘치며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향인 ‘활력 및 긍정성’은 부정적 생각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키며, 유아가 자신이 가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권석만, 2009) 긍정적 역할을 함에 따라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놀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미있는 놀이내용 등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낙관성이 유아의 놀이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은 놀이성이 높은 집단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으로 밝혀졌다. ‘자기조절’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내적통제소재에 기반을 두어 조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놀이상황에 중요한 성격특질로 작용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은 정서조절(정서인식, 정서억제, 대처하기) 및 인지조절(계획하기, 평가하기)을 포함하는데, 자기조절은 명령과 지시가 아닌 자발적 내적 기준에 따른 행동이다(권석만, 2009; Katherine et al., 2007). 유아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는 과정에서 “해 볼래요”, “할 수 있어요”라고 표현하는 과정 및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놀이방식을 결정하고 놀이규칙을 만드는 경험(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놀이의 지속시간, 놀이가 심화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돕고, 유아의 만족지연, 유혹에 대한 저항, 놀이상황에서 목표로 설정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인내하는 감정과 행동을 높여 궁극적으로 유아놀이의 목적성을 추구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탄력성도 놀이성 상집단을 예측하는 성격강점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관찰해보면, 실패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건설적 귀인개념을 갖고 있다(Hooper, 2012). 실패는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행동귀인양식은 유아가 놀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놀이상황에서는 실수에 대해 허용적이며 이해될 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아는 실패를 하였음에도 목표를 성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다시말해, 실패의 경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는 보편타당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놀이상황에서 허용되는 역경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아 놀이성을 증진하기 위한 성격강점의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유아들을 표집하여 유아 놀이성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유아 놀이성의 특성의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군집분석을 사람 중심적 접근으로 표본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운영 및 지역, 교사, 유아교육기관의 특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교사평정용으로 개발된 도구이므로, 교사의 유아 성격강점에 대한 개인적 편향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면담, 부모면담, 유아면담 등 다면적 유아강점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예측요인을 살펴보는 후속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 놀이성 상집단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밝혀 성격강점 증진을 통한 유아 놀이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아놀이성의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유아의 성격강점 특성을 밝히고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개인 놀이성의 차이가 성격강점과 어떻게 관련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정 (2015).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매개효과.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22(3), 271-290.
- 곽영순 (2015). 미래 학교교육 변화 및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교사 전문성 탐색. **교과교육학 연구**, 19(1), 93-111. doi:10.24231/rici.2015.19.1.93
-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서울: 교육부·보건복지부.
- 권석만 (2009).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석만, 김지영, 하승수 (2012). **성격강점검사 청소년용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권석만, 유성진, 임영진, 김지영 (2010). **성격강점검사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김겸섭 (2008). 놀이학의 선구자, 호이징하와 까이와의 놀이담론연구. **인문연구**, 54, 147-190.
- 김광수, 하요상, 김은향, 이경집, 한선녀, 양곤성(2015). 한국 아동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초등 교육연구**, 28(1), 1-25.
- 김정운 (2006). **노는 만큼 성공한다**. 서울: 21세기 북스.
- 김지영 (2019). 연령대별 성격강점의 발달모형: 한국인의 연령집단에 따른 성격강점 비교 및 문화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건강**, 24(3), 607-630. doi:10.17315/kjhp.2019.24.3.005
- 나은숙 (2018). 유아의 자아개념 및 행복감이 놀이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3), 159-176. doi:10.22155/JFECE.25.3.159.176
- 박화운, 안라리 (2006). 만 3, 4, 5세 유아의 연령별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전략의 관계. **유아교**

- 육연구, 26(4), 351-369.
- 신현정 (2019). 강점 키우기를 통한 유아의 인성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어린이미디어 연구**, 18(3), 161-186. doi:10.21183/kjcm.2019.09.18.3.161
- 유영의 (2006). 유아의 정서지능과 놀이성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3), 239-258.
- 이경화 (2019).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따른 정부 발행 교단지원 자료의 놀이담론 비판. **생태유아교육연구**, 18(1), 1-25. doi:10.30761/ecoece.2019.18.1.1
- 이부미 (2001).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서울: 또하나의 문화.
- 이승하 (2019). 유아 또래놀이에서 발견되는 사회도덕적 가치. **유아교육연구**, 39(2), 437-457. doi:10.18023/kjece.2019.39.2.018
- 이화도 (2016). **포스트모던 인문학적 사유와 유아교육**. 서울: 창지사.
- 임부연 (2015). **누리과정 미학을 만나다**. 경기: 양서원.
- 임부연 (2017).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놀이중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개정방향 모색. **교육혁신연구**, 27(4), 59-78. doi:10.21024/pnuedi.27.4.201712.59
- 임부연, 손연주 (2019). 유아교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놀이~배움의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265-287. doi:10.22251/jlcci.2019.19.3.265
- 임부연, 유희령, 류미향 (2012). 교사의 미적 안목 지원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Maxine Greene의 미학교육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9(1), 55-76. doi:10.24211/tjkte.2012.29.1.55
- 임중현, 유경훈, 김병찬 (2017).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44(2), 5-32. doi:10.22804/jke.2017.44.2.001
- 정선아, 김희연 (2011).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의 개정방향-유치원의 고유성과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연구**, 31(1), 289-307. doi:10.18023/kjece.2011.31.1.014
- 지성애, 김승희 (2010).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상호작용, 놀이성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5(4), 111-127.
- 최명선, 김지혜 (2006).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4), 103-116.
- 최일선, 권정윤, 임수진 (2019).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육내용 진술방식 분석: 사회관계영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9(4), 241-258. doi:10.18023/kjece.2019.39.4.010
- 최지영, 박유영 (2012). 유아의 놀이특성과 또래유능성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6(3), 229-244.
- 탁정화 (2017). 유아강점 군집에 따른 행복의 차이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6(3), 309-331. doi:10.21183/kjcm.2017.09.16.3.309
- 탁정화 (2019). 물입이론에서 본 유아놀이-배움에 대한 소고. **유아교육연구**, 39(2), 509-536. doi:10.18023/kjece.2019.39.2.021
- 탁정화, 황해익 (2019). 유아강점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생태유아교육연구**, 18(1), 125-153. doi:10.30761/ecoece.2019.18.1.125
- 허혜경 (2013).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 효과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2), 83-102.
- 황해익, 제희선, 채혜경 (2019). 유아의 강점에 대한 의미탐색: 유아와 교사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867-890.
- 황해익, 탁정화 (2016). IPA 기법을 통한 영유아 성격강점의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차이연구. **유아교육연구**, **36**(6), 395-421. doi:10.18023/kjece.2016.36.6.017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4), 319-336.
- Ben-Shahar, T. (2007). *Happier: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 Biswas-Diener, R. (2010). *Practicing positive psychology coaching: Assessment, activities and strategies for success*. New York: Mulpure Publishing.
- Blikstein, P. (2013). Digital fabrication and 'making' in education: The democratization of invention. In J. Walter-Herrmann & C. Buching (Eds.), *FabLabs: Of machines, makers and inventors* (pp. 173-180). Bielefeld, Germany: Transcript Publishers.
- Boyer, W. A. R. (1997). Playfulness enhancement through classroom intervention for the 21st century. *Childhood Education*, **74**(2), 90-96. doi:10.1080/00094056.1998.10521925
- Brdar, I., & Kashdan, T. B. (2010). Character strengths and well-being in Croatia: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tructure and correlat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151-154. doi:10.1016/j.jrp.2009.12.001
- Bronfenbrenner, U. (1992).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인간발달 생태학**(이영 옮김). 서울: 교육과학사(원판1979).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4**, 218-226. doi:10.1037/0003-066X.56.3.218
- Gillham, J., Adams-Deutsch, Z., Werner, J., Reivich, K., Coulter-Heindl, V., Linkins, M., et al. (2011). Character strengths predict subjective well-being during adolescenc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1), 31-44. doi:10.1080/17439760.2010.536773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lverson, E. R., & Sheridan, K. (2014). The maker movement in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84**(4), 495-504. doi:10.17763/haer.84.4.34j1g68140382063
- Hooper, J. (2012). *What children need to be happy, confident and successful: Step by step positive psychology to help children flourish*.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doi:10.1080/00221325.1965.10533661
- Littman-Ovadia, H., & Lavy, S. (2012). Character strengths in Israel: hebrew adaptation of the VIA

- inventory of strength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8(1), 41-50. doi:10.1027/1015-5759/a000089
- Lopez, S. J., & Snyder, C. R. (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Washington, DC: APA.
- Magyar-Moe, J. L. (2009). *Therapist's guide to positive psychological interven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Academic press.
- Martinez-Marti, M. L., & Ruch, W. (2014). Character strengths and well-being across the life span: Data from a representative sample of German-speaking adults living in Switzerland. *Frontiers in Psychology*, 5, 1-10. doi:10.3389/fpsyg.2014.01253
- McGrath, R. E. (2014). Character strengths in 75 nations: An updat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1), 41-52. doi:10.1080/17439760.2014.888580
- Park, N.,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3), 323-341.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doi:10.1521/jscp.23.5.603.50748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6). Character strengths in fifty-four nation and fifty US state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3), 118-129. doi:10.1080/17439760600619567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esnick, M. (2018). *Lifelong kindergarten: Cultivating creativity through projects, passion, peers, and play*. Boston, MA: The MIT Press.
- Shoshani, A., & Slone, M. (2013). Middle school transition from the strengths perspective: Young adolescents' character strengths, subjective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163-1181. doi:10.1007/s10902-012-9374-y
- Singer, E. (2013). Play and playfulness, basic featur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21(2), 172-184. doi:10.1080/1350293x.2013.789198
- Steinberg, L., Vandell, D. L., & Bornstein, M. H. (2010). *Development: Infancy through adolescence*. Toronto: Nelson Educati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Zhang, Y., & Chen, M. (2018). Character strengths, strengths use, future self-continu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Frontiers in Psychology*, 9, 1-14. doi:10.3389/fpsyg.2018.01040

논문투고: 20.06.15
수정원고접수: 20.07.16
최종게재결정: 20.08.04